

꿈꾸는 어와나

아름다운교회 T&T 이진

진이가 어와나에 입단한 것은 7살 불티단에 입단하면서 부터였다. 3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교사이면서 엄마인 나와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다녔지만 그동안의 예배보다 재미있다고 신난다고 좋아했다. 어와나의 옷도 보석으로 시상하는 것도, 단계를 끝났을 때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의 기도와 축하를 받는 것도 너무 생소했지만 금방 적응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불티단 옷을 입고 보석들을 달아가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보석을 달려고 노력도 하는 모습이 세상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보다 너무 예뻐 보였다.

우리 아름다운교회에서 처음으로 불티단의 모든 과정을 가장 빨리 완성하여서 완성패를 받았을 때는 정말 아무나 붙잡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진이와 나는 기뻐고 감사했다. 누구의 강요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진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은 상이기에 더 뿌듯했다. 게임을 통해서 배려심도 질서도 알게 되어 학교에서도 칭찬 받고 있다.

지금은 T&T를 입단하여 더 노력을 해야 하기에 힘이 들텐데 아파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도 교회를 가겠다고 알아만 있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동생인 유빈이도 다리 김스를 하고도 핸드북을 챙기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다. 내가 아파 누워있어도 기도부터 해주는 우리 진이 어와나를 통해 성장해가면서 그동안의 암송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들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실천하여 늘 주님 안에 감사와 행복을 맘껏 누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소중한 딸이 되리라 믿고 기도 한다.



Beautiful Church – Jin Lee (T&T)

Jin started Awana Sparks at seven.

I was her mother and Sunday school's teacher, so took my daughter, Jin and her sister to Sunday school. However, when Jin started to attend Awana then, she enjoyed it better than Sunday school.

At first, Jin felt everything unfamiliar, but she was soon adapted to all about Awana – uniform, wonderful awards and celebration time that clubbers were given applause and prayer from priest when completing each stage.

I thought it seemed wonderful that she competed eagerly to get awards with other clubbers than she studied hard for other academic reasons.

When she was the first to finish Sparks in our church and awarded Sparks Award, Jin and I were very happy and thankful to God.

Jin tried hard for herself not because someone had her do it but because she did it on her own initiative, so my heart was full! Thanks to Awana game, in school, she also won praise for her thoughtful concern and observing game rules.

Because now she has become T&T, she has to try something more than Sparks. Sometimes when she can't play game for being sick, she asks me to let her sit in Awana time. In this case, I not only thank to God but also feel shame about myself who is her elder of faith.

Thanks to Jin, her younger sister, Yu-bin goes to church packing handbooks in uniform even though she wears a cast. Besides, when I am confined to bed, Jin prays for me.

Through Awana, she has grown up greatly. Even if she can't remember all the Word memorized, I'm sure and pray for her that she would learn the plan of God in the Word, live up to action and show the glory of the Lord to whole world.

